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관한 연구

박 희 영* ·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학과 석사과정*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an Bodice Size of Rent Wedding Dress

Hee-Young Park* · Hyo-Jin Lee**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5. 7. 26 투고)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lies on classifying the size, which is mostly favored in Korea where the wedding dress is usually regarded as an article for rent, and on suggesting the range of sleeve design and that of neck line of bodice.

For that, I extracted the average size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the standard size of actual bodice from real wedding dress manufacturing compan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search I named the standard size of Korean wedding dress for rent as 'WM' which has the girth of 88cm and the waist measure of 69cm. Based on the size 'WM', I also named the size 'WS' which has the girth of 82cm with extra length of 6cm up and down and the waist measure of 64cm with extra length of 5cm, and the size 'WL' which has the girth of 94cm and the waist measure of 74cm with same extra length as the size 'WS'. The extra space for the inseam of the back is 3 inches for left and right for all sizes and the mark of body size is standardized as 'girth-waist measure'.

After that, I suggested the design types of sleeves and neck line of bodice which defined as its size by classifying the bodice of wedding dress based on its size. Generally the neck line of the tank top style has the widest range of wearable size, and the high neck line and bateau neck line types have the narrowest range. And the sleeveless type has the widest range of wearable size while the raglan type has the narrowest one.

Key words: rent wedding dress(대여 웨딩드레스), sample for rent(샘플 대여), standard size(표준 사이즈), average size(평균 사이즈), fitness(피트니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식 예복으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주로 착용하고 예식 이후의 단계인 폐백절차에서는 활옷 등의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웨딩드레스 착용 형태는 크게 맞춤 구매와 대여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맞춤 구매는 소비자의 사이즈와 기호에 맞게 주문제작을 통해 당사자가 소장하는 형태이고 대여형태는 모든 형태의 웨딩드레스 샵(wedding dress shop)¹⁾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들 중 선택을 통해 대여하여 예식 때 착용한 후 다시 반납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여 형태는 예식장내의 웨딩드레스 샵이나 개인 웨딩 샵 등 모든 형태의 웨딩드레스 샵에서 보유되어 있는 드레스들 중에서 대여한 후 예식 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드레스를 대여하는 형태는 크게 샘플대여와 맞춤대여로 구분된다.

성인 여성복에 비해 웨딩드레스는 수요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작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지출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디자인을 사이즈별로 여러 벌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웨딩드레스 샵의 경우 기본 허리치수를 중심으로 몇 inch씩 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적인 사이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길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웨딩드레스 장식의 특성상 구두의 굽 높이로 조절 가능한 예상치를 염두에 두거나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본 드레스 치수의 사이즈 조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반 성인 여성복과는 달리 웨딩드레스는 여유분량이 없이 피트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레이팅(grading)만으로는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대중화되어 있는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에 따라라도 치수의 조정 폭이 달라지게 된다.

웨딩드레스 사이즈는 주로 상반신과 그에 따른 디자인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사이즈에 따라 디자인 범위도 한계가 지어진다. 특히 웨딩드레스만의 고유특성상 각 사이즈 분류 안에서도 디자인이 제한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가슴둘레-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웨딩드레스 상반신 사이즈의 분류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이즈 분류에 따라 한계 지어지는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디자인은 바디스(bodice)의 절개선이나 허리선의 위치 등을 제외하면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상반신의 사이즈 분류를 위해서는 바디스의 각 부위별 치수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대중에게 선호되는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에 따른 사이즈 조정 범위를 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기본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치수구분으로부터 소비자는 착용시에 안락감을 느낄 수 있고 전문점에서는 드레스 관리와 주문방식에 있어서 편리함을 누리며, 제작업체에게는 과학적인 주문체계 제공으로 인한 판매율 증가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웨딩드레스로 통일하여 명명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체계적인 상반신 사이즈 분류를 위해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제작업체 중 전국적인 납품 경험 및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자체 제작실이 구비되어 있는 제작업체 10곳 중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생산하는 웨딩드레스의 벌 수가 최소 100벌 이상인 8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웨딩드레스 제작사의 상반신 기본 치수들을 조사하였다.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를 위하여 먼저 성인 여성복의 기본 신체 치수들을 다양한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 조사하였다. 또한 성인 여성복 상의 중 재킷은 가장

상반신에 피트되어 인체치수가 잘 반영된 입체적인 의복이라는 점에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치수와 비교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 여성복 아이템 중 재킷의 기본 신체치수들을 수집, 조사하였다.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들을 고찰하였다.

수집, 조사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기본 신체치수와 성인 여성복 재킷의 신체치수, 그리고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들과 앞서 조사, 분석된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신체치수들과 종합, 비교하여 '가슴둘레-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를 분류하였다.

또한 체계화된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의 유형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웨딩드레스에 주로 응용되는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웨딩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네크라인이나 소매 디자인 자체보다는 소재나 장식 기법, 전체적인 실루엣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중적인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의 국내 웨딩관련 정기 간행물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웨딩드레스에 관련된 국내 석, 박사 학위 논문 및 학회지 논문, 성인 여성복 사이즈와 관련된 석, 박사 논문 및 학회지 논문, 국내 웨딩관련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 웨딩드레스 제작 업체 설문 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

II. 대여 웨딩드레스와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체계

1. 웨딩드레스의 개념 및 역사

웨딩드레스는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드레스이며 어떠한 스타일이든 모두 웨딩드레스이지만 정통적인 서양 웨딩드레스는 백색의 새틴, 오간자 또는 그와 유사한 천이나 레이스 등을 사용하고 뒤에는 트레인(train)을 길게 끌리도록 혹은 짧게 늘어뜨린

것을 의미한다²⁾.

서양에서 신부가 드레스를 입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이다. 고대의 웨딩드레스는 정숙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부드럽고 얇은 실크를 드레이프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는 형식을 취했다.

중세(5세기 중반-15세기 중반)의 초기에는 종교의 영향으로 인체를 무시하였으므로 웨딩드레스 역시 평면의 튜닉형으로 인체를 은폐하였으나 후기에는 인체에 대해 자연성, 고결성, 세속성을 부여하여 큰 머리와 작은 가슴, 큰 배를 강조한 웨딩드레스가 입혀졌다.

근세(16-18세기)에는 현세적인 미의식으로 말미암아 배와 엉덩이를 강조하여 웨딩드레스의 형태는 더욱 화려하고 장식적이었으며, 근대(19세기-20세기)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교회결혼의 종교성을 제거하고 대신 최상의 순간에 임하는 신부의 의상 그 자체의 미적 형식을 중요시 하였다.

웨딩드레스 색에 있어서는 프랑스 루이 17세의 신부인 안느 드 브르타뉴(Anne De Bretagne)가 백색 새틴 가운을 처음으로 착용한 이후 백색이 가장 인기 있는 색이 되었다³⁾. 18세기 말에는 백색의 의미가 신부의 가문이 단지 한 번만 입을 웨딩드레스를 가질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부의 과시수단으로 착용되던 백색의상은 1813년 여성잡지인 저널 데임즈(Journal Dames)에 웨딩드레스가 소개되면서 순결을 상징하는 백색의 상징성이 우선시 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정착되었다⁴⁾.

우리 나라에서의 개화기에 들면서 최초의 신식 결혼은 1890년으로 그 당시만 해도 전통 혼례복이 착용된 시기이며 그 후 신부의 혼례복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흰색의 치마, 저고리에 화관과 면사포를 쓰고 서구식 결혼식을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신식결혼식은 간략한 절차와 경제적인 이점에서 체면치레에 의한 구습에 얽매어 있던 일반 서민들에게 환영을 받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890년에 신식 결혼식이 거행된 후 70여년이 지난 195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서양의 신부의상인 백색의 웨딩드레스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착용하게 되었다.

1950년대는 6.25전쟁으로 인한 혼란기 속에서 미군의 진주가 서구화를 가속시켰고 1950년대 말 본격적인 서구식 웨딩드레스가 도입되었다. 머리위로 올라간 베일은 짧아서 어깨를 덮었고 화관의 크기가 커졌으며 부케도 등장하였으며 트레인도 허리 뒤에 늘어져 있었다. 예식장은 웨딩드레스를 대여하기 시작하였다⁵⁾.

2. 웨딩드레스의 대여 현황

1) 샘플(Sample) 대여

‘샘플 대여’는 웨딩드레스 샵에서 제작업체로부터의 사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웨딩드레스들 중에서 소비자가 착용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웨딩드레스를 기본적인 가봉을 한 다음 대여해주는 일반적인 대여형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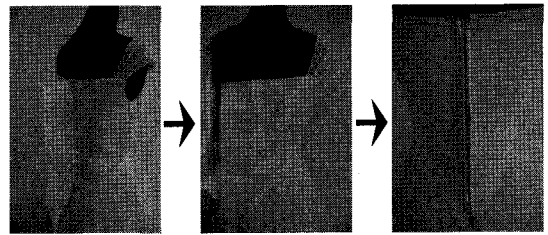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대부분 다양한 디자인을 한 벌씩 보유하는데 이는 대여하는 웨딩드레스의 특성상 동일한 디자인을 사이즈별로 여러벌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웨딩드레스는 수요측면에서는 성인 여성복에 비해 수요량이 적고 제작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지출이 많다. 또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착용가능 횟수가 제한되며 연중 착용빈도가 계절적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소재의 종류에 있어서도 성인 여성복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샘플 대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2004년 마이웨딩 잡지의 결혼할 예비신부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웨딩드레스를 샘플 대여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83%로 압도적 수치를 나타냈고 맞춤 대여를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15%로 그 뒤를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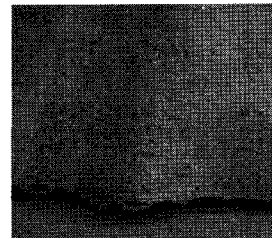
샘플 대여는 보유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한 웨딩

드레스를 착용상태에서 뒷중심 시접의 여유분량을 핀으로 사이즈 가감하여 지퍼(zipper)가봉⁶⁾으로 완성하여 대여하게 된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길이의 경우, 레이스(lace)의 스킨랩(scallop)이나 특수소재로 웨딩드레스의 밑단이 마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두의 굽 높이로 조절을 하거나 임시로 보정하는 정도로 대여되고 있다.

<그림 1>은 대여 웨딩드레스의 일반적인 가봉형태인 지퍼가봉의 순서이고, <그림 2>는 스커트 밑단의 스킨랩 사용의 예이다.



<그림 1> 지퍼가봉의 순서



<그림 2> 스킨랩 사용의 예

2) 맞춤 대여

‘맞춤 대여’는 여러 종류의 웨딩드레스 샵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의 디자인이나 소비자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 제작 형식으로 완성된 웨딩드레스를 처음으로 착용하고 반납하는 형태를 말한다.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유사하거나 똑같은 디자인을 사입이나 주문제작을 통해 대여해 준다. 하지만 착용 후에 웨딩드레스 샵에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맞춤 구매와는 구별되고 주문 제작 개념이 부분적으로 도입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맞춤 대여는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지출은 더 많이지지만, 직접 주문한 웨딩드레스에 대한 최초의

착용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소수의 신부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표 1〉는 웨딩드레스의 샘플 대여와 맞춤 대여의 장, 단점을 요약한 것이다.

3. 대여 웨딩드레스의 사이즈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대여하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샵의 상반신 기본 치수는 곧 제작업체들에서 웨딩드레스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상반신 기본 치수들이다.

이에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제작업체 중 자체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하고 납품 경험 및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제작실이 구비되어 있는 제작업체 중 3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서울 소재의 웨딩드레스 샵 10여개 업체를 1차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10여개 업체 중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한 해에 생산하는 웨딩드레스의 벌 수가 최소 100벌 이상인 8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웨딩드레스 제작사의 상반신 기본 치수를 조사하였다. 한 해에 생산하는 웨딩드레스가 최소 100벌 이상이 된다는 것은 자체 대여를 위한 샘플 이외의 납품을 위한 벌 수가 50% 이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정된 8개 업체의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는 모두 독립적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체 패턴사와 재단 시

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디자인으로부터 제작, 납품까지 모든 과정이 완전하게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최근 3년 기준으로 최소 100벌 이상 최대 300벌 이하의 웨딩드레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샘플 제작과 맞춤 제작⁷⁾을 병행하고 있었다. 이 중 전체 생산량에서의 샘플 제작의 비중은 50%미만인 경우가 3업체, 50%~70%인 경우가 1업체, 70%~90%인 경우가 1업체, 90%이상인 경우가 3업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샘플 제작과 맞춤 제작 모두 기본적인 상반신 기본 치수는 동일하고 기본 치수로 만들어진 패턴의 그레이딩(grading)을 통해 사이즈별 제작을 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표치수는 허리둘레와 가슴둘레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치수규격은 모두 inch로 통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웨딩드레스 제작업체 패턴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웨딩드레스의 제작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넓이, 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작업체에서 웨딩드레스 상반신 패턴 제작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를 꼽았다. 8개 업체의 기준이 되는 가슴둘레 평균은 86cm(34inch)로 분석되었고, 허리둘레의 평균은 66cm(26inch)로, 등길이는 38cm(15inch)로 분석되었다. 한편 뒷중심 시점의 여유량은 8cm에서 10cm(2inch에서 3.75inch)까지로 조사

〈표 1〉 샘플 대여와 맞춤 대여의 장, 단점

	샘플 대여	맞춤 대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경제적 절약 -다양한 샘플 디자인에서 착용 후 선택할 수 있음 -우리나라 여성의 기본 사이즈인 55와 66사이즈에서 더욱 선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사이즈에 따른 제작으로 완벽한 피트니스를 느낄 수 있음 -소재부터 디테일까지 소비자 기호에 따라 세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소비자의 직접 선택에 따른 디자인 만족도가 높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즈에 따른 세밀한 피팅은 어렵고, 디자인 수정도 어려움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므로 이용 빈도수에 따라 마모 가능성이 큼 -일반적 사이즈 이외의 소비자들은 실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선택폭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감이 높음 -제작의뢰 당시의 디자인이 완성시에 그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상당자의 디자인 지식과 제작 능력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가 다소 다를 수 있음

되었다.

각각의 웨딩드레스 제작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반신의 기본 치수들을 살펴보면 들레항목, 길이항목, 너비항목, 기타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웨딩드레스는 인체의 상반신에 피트되어 가슴 실루엣이 강조되는 웨딩드레스의 특징 때문에 상반신 곡선 실루엣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동일하거나 비슷한 웨딩 브라지어(wedding brassiere)⁸⁾를 착용하기 때문에 성인 여성복에 비해 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간의 들레차이가 더욱 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제작업체에 맞춤 생산 의뢰가 들어올 경우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주문

되는 사이즈에 대해 4개 업체에서 허리둘레 기준 66cm에서 76cm(26inch에서 30inch), 3업체에서 66cm(26이하), 1업체에서 76cm(30inch)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샘플 대여 웨딩드레스나 맞춤 대여 웨딩드레스 모두 허리둘레가 66cm에서 76cm(26inch에서 30inch)까지의 경우가 빈도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66cm(26inch) 이하의 주문생산이 많은 것은 성인 여성복 사이즈 5와 6에 해당되는 사이즈 보다 작은 허리둘레를 가진 소비자들의 경우 보통의 신체 사이즈를 가진 소비자에 비해 맞춤 대여의 빈도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는 8개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별 상반신 기본 치수이다.

<표 2>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별 상반신 기본 치수

단위: cm(inch)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들레항목	가슴둘레	88 (34.75)	91 (36)	86 (34)	84 (33)	86 (34)	86 (34)	91 (36)	86 (34)
	밑가슴둘레	85 (33.5)	89 (35)	84 (33)	-	-	84 (33)	89 (35)	84 (33)
	허리둘레	69 (27)	64 (25)	66 (26)	64 (25)	64 (25)	69 (27)	71 (28)	69 (27)
	목둘레	38 (15)	36 (14)	37 (14.5)	36 (14)	38 (15)	-	-	38 (15)
	진동둘레	45 (17.625)	40 (15.5)	41 (16)	38 (15)	43 (16.75)	43 (17)	44 (17.5)	43 (17)
길이항목	등길이	38 (15)	38 (15)	38 (15)	39 (15.5)	39 (15.5)	39 (15.5)	39 (15.5)	39 (15.5)
	앞길이	-	-	41 (16)	43 (16.75)	-	-	43 (16.75)	43 (16.75)
	유장	25 (9.75)	25 (10)	24 (9.5)	25 (9.75)	25 (10)	25 (9.75)	25 (9.75)	25 (10)
	소매산	15 (6)	-	-	14 (5.5)	15 (5.75)	15 (5.75)	15 (6)	15 (6)
너비항목	어깨넓이	38 (15)	38 (15)	38 (15)	38 (15)	37 (14.5)	38 (15)	38 (15)	38 (15)
	유폭	17 (6.75)	18 (7)	18 (7)	17 (6.75)	18 (7)	17 (6.75)	18 (7)	17 (6.75)
	앞폭	33 (13)	33 (13)	32 (12.5)	33 (13)	33 (13)	33 (13)	32 (12.5)	33 (13)
	뒷폭	34 (13.5)	33 (13)	32 (12.5)	36 (14)	33 (13)	34 (13.5)	34 (13.5)	34 (13.5)
기타	뒷중심 시절	좌,우 각 8	좌,우 각 5-8	좌,우 각 8	좌,우 각 8	좌,우 각 8	좌,우 각 8-10	좌,우 각 8	좌,우 각 8
	여유분량	(3)	(2-3)	(3)	(3)	(3)	(3-3.75)	(3)	(3)

* 우리나라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치수규격은 모두 inch로 통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우리나라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체계

1) 우리나라 성인 여성복 사이즈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성인 여성복 제작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류치수 규격은 1981년에 제정되어 신사복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신체 호칭과 신체치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1차 제정 시 호칭은 신체 각 부위의 평균치수를 '5'라는 기호로 설정하여, 예를 들면 성인 여성복 상의의 경우 '키-가슴둘레'를 구성요소로 한 '55'가 평균에 해당하는 중심치수가 되었다. 이것은 1980년 당시 평균치로서 키 155cm, 가슴둘레 85cm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복호수이다. 여기에 키는 5cm, 가슴둘레는 3cm로 등간을 두어 호수를 조합하도록 하였다⁹⁾. 이어서 1987년에 제 2차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반영한 규격 제정이 이루어져 성인 여성복 외의류의 경우 22개로 호칭이 추가되었다.

1990년에는 기본 치수를 인체 그림 위에 삽입하거나 치수항목과 신체치수를 직접 라벨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치수 규격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피트성¹⁰⁾이 요구되는 성인 여성복 상의는 '가슴둘레-영덩이둘레-키'로 바뀌어 표기법이 '85-90-155'로 되었으며 이것은 1차 호칭의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슴둘레, 영덩이둘레, 키의 등간은 각각 3cm, 2cm, 5cm로 하였다¹¹⁾.

이러한 의류치수 표기에 대해 시판 중인 성인 여성복을 보면 기준 규격이 다르고 치수 분류가 달라 업체간에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호칭 방법 및 종류 또한 상이하여 소비자가 어느 호칭이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하다¹²⁾. 또한 아직도 의류시장에서는 개정 전 표준 의류치수 방식과 개정 후 규격이 혼용되어 있다¹³⁾.

현재 의류제품의 라벨에 부착되는 호칭 표기는 현행 KS 체계에 따라 신체부위의 조합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44, 55, 66...등으로 호칭되는 1987년의 구 호칭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한 사이즈 선택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¹⁴⁾.

한편, 성인 여성복의 일반적인 사이즈 체계는 브랜드의 타깃 연령이나 컨셉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체계들이 필요하다. <표

<표 3>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인 여성복 일반 사이즈의 예

(단위: cm)

사이트 출처	http://www.halfclub.com	http://www.auction.co.kr	네이버 지식 in
	halfclub	auction	naver 지식 in
가슴 둘레	44	82	82
	55	85	84~86
	66	88	89~94
	77	94	96.5~101.5
허리 둘레	44	64	61
	55	67	63.5~66.5
	66	70	68.5~73.5
영덩이 둘레	77	73	76~81
	44	-	86
	55	-	89~91.5
	66	-	94~99
키	77	-	101.5~107
	44	155	-
	55	160	-
	66	165	-
	77	170	-

3)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성인 여성복 일반 사이즈의 예들로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인 여성복들의 사이즈이다. 이러한 각각의 사이트들은 20-30대를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브랜드 몰(mall)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의 사이즈 체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이즈 체계를 가지는 객관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라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자료를 중심으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44사이즈는 가슴둘레는 약 81에서 82cm, 허리둘레는 61에서 64m, 엉덩이둘레는 86에서 88cm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55사이즈는 가슴둘레는 84에서 86cm, 허리둘레는 약 63.5에서 67cm, 엉덩이둘레는 89에서 92cm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66사이즈는 가슴둘레는 약 88에서 94cm, 허리둘레는 약 67에서 73m, 엉덩이둘레는 94에서 99cm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77사이즈는 가슴둘레는 94cm 이상, 허리둘레는 70cm 이상, 엉덩이둘레는 100c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44와 55사이즈에 비해 66과 77사이즈가 더욱 치수의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2) 성인 여성복 재킷의 사이즈 체계와 KS K 0051: 2004

성인 여성복 재킷은 상의 중 인체치수가 잘 반영된 입체적인 의복으로 치수 만족도가 착용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제품치수의 형태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¹⁵⁾. 또한 웨딩드레스는 대부분 상반신이 피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치수와 제품치수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있어서 본 연구 내용에 비교 고찰될 수 있는 성인 여성복 상의류에 해당하는 정장 재킷의 신체치수에 초점을 두어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피트되는 재킷도 일정한 여유량이 설정되어 있으나 웨딩드레스는 성인 여성복과는 달리 제품치수가 곧 신체치수로 인지된다. 따라서 대역 웨딩드레스는 제품치수는 신체치수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품치수의 의미가 성인 여성복과는 차이가 있다.

완성된 성인 여성복은 각각 아이템별로 모든 항목에 여유량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위생적 측면에서 활동성과 통풍 등을 고려해야하는 평상복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웨딩드레스는 피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제 착용 시에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여유량이 전혀 없으며 단지 폭넓은 사이즈의 착용을 위한 뒷중심 부분의 여유량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인 여성복 재킷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의 성인 여성복 재킷의 치수 분석결과, 웨딩드레스의 주된 착용 소비자층인 영 브랜드와 미시 브랜드의 대표신체치수 및 분포범위는 <표 4>과 같다¹⁶⁾.

<표 5>는 오설영, 천중숙의 연구 중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¹⁷⁾이다. 이는 다른 제시된 표의 대상기간인 2004년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에 관한 연구는 오설영, 천중숙의 2002년도 연구가 가장 최근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성인 여성복 재킷의 브랜드별 대표신체치수 및 분포범위(2004)

(단위:cm)

그룹	사이즈	신체치수	신체치수 분포범위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범위	간격	범위	간격	범위	간격
영브랜드	55	85-94-160	82-85	3	88- 96	8	155-160	5
	66	88-98-165	85-91	6	90-100	10	160-165	5
미시브랜드	55	85-94-155	82-88	6	88- 94	6	155-160	5
	66	88-96-160	85-91	6	90- 98	8	160-165	5
	77	91-98-165	88-95	7	92-104	12	160-165	5

〈표 5〉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의 비교(2002)

호칭		18~23세	24~29세	30~39세
1	키	163.5	163.1	162.8
	가슴둘레	84.1	83.1	84.4
	허리둘레	65.9	65.9	65.8
	엉덩이둘레	91.2	91.6	91.3
2	키	165.8	164.3	163.5
	가슴둘레	87.9	87.4	88.4
	허리둘레	69.4	69.7	69.8
	엉덩이둘레	96.2	95.7	95.3
3	키	(160)	165	164.0
	가슴둘레	(-)	92.5	93.4
	허리둘레	(72)	74.5	74.9
	엉덩이둘레	(96)	101.0	100.2
4	키			160.0
	가슴둘레			101.0
	허리둘레			82.0
	엉덩이둘레			106.5

주1) 호칭 1:각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장 작은 치수 ~ 호칭 4:가장 큰 치수
 주2) 표 10은 각 브랜드군의 50%이상의 업체에서 해당 호칭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주3) ()안은 해당 호칭에 대해 하의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수치임.

〈표 5〉을 살펴보면 다른 성인 여성복의 의류 치수와 비교해 볼 때, 호칭 1은 '55', 호칭 2는 '66', 호칭 3은 '77', 호칭 4는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앞서 살펴본 성인 여성복 재킷의 그룹별 사이즈 신체치수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의 포괄적인 신체치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은 〈표 3〉, 〈표 4〉, 〈표 5〉를 포함하는 사이즈별 치수 분포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편 KS K 0051:2004 성인 여성복의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부위를 살펴보면 키를 제외하고 의류 종류별로 공통적으로 기본이 되는 신체 부위가 상의류와 상하 연결의에서는 가슴둘레이고 하의류에서는 허리둘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여 웨딩드레스는 피트니스를 감안할 때 상반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로 성인 여성복과 비교할 때 상의류와 하의류를 조합된 기본 신체부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대여 웨딩드레스의 뒷중심 여유분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상반신의 디자인과 유평과 가슴둘레, 허리둘레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바디스의 사이즈 수용범위를 판단하여 체계적인 사이즈 체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은 2004년 개정된 한국 표준협회 KS의 성인 여성복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¹⁸⁾이다.

〈표 6〉 우리나라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별 치수 분포범위

(단위: cm)

사이즈	신체치수 분포범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범위	간격	범위	간격	범위	간격
44	81~82	2	61~64	3	86~88	2
55	84~86	2	63.5~67	3.5	89~92	3
66	88~94	6	67~73	6	94~99	5
77	94이상		70이상		100이상	

<표 7> KS 성인 여성복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2004)

구분	의류 종류 대표명	예시	기본 신체 부위 및 표기 순서		
			1	2	3
상의	정장 상의 ⁽¹⁾	정장 재킷, 정장 조끼, 정장 코트, 피트한 블라우스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키
	캐주얼 재킷, 캐주얼 코트, 점퍼 ⁽²⁾	블레이저 재킷, 기타 재킷, 캐주얼점퍼, 아노락, 등산용 점퍼, 파카, 캐주얼 코트	가슴 둘레	키	-
	셔츠 ⁽²⁾	남방 셔츠, 캐주얼 셔츠, 캐주얼 블라우스	가슴 둘레	-	-
	편물제 상의류 ⁽²⁾	카디건, 스웨터, 폴오버, 폴로티, 니트티, 티플넥티, 티셔츠, 니트조끼	가슴둘레	-	-
상하 연결의	코트 ⁽²⁾	오버코트, 탑코트, 반코트, 트랜치코트	가슴 둘레	키	-
	원피스 ⁽¹⁾	정장 원피스, 드레스, 피트한 점퍼 스커트와 오버롤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키
	가운 ⁽²⁾	캐주얼 원피스(2), 오버롤(2)	가슴 둘레	키	-
	실험 가운	실험 가운, 나이트가운, 기타 가운	가슴 둘레	키	-

주⁽¹⁾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로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강조되는 의류, 즉 착용할 수 있는 신체 치수의 범위가 비교적 좁은 의류임.

주⁽²⁾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적합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의류, 즉 비교적 넓은 범위의 신체 치수가 착용할 수 있는 의류임.

비고 제품(쇼트 재킷, 코트 등)의 스타일에 따라 엉덩이 둘레에 대한 피트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은 엉덩이 둘레를 제외할 수 있다.

또한 KS K 0051에 의하면 상의, 하의 및 전신용 의류 중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체격과 키에 대한 신체 치수를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과 기본 신체 부위의 치수 범위 및 문자 호칭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위를 나타내는 수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⁹⁾.

<표 8>은 KS K 0051의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 구성법이다.

<표 8>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 구성법

호칭	의미	
체격 표시 호칭	S	체격이 작은 small의 의미를 나타내는 약자
	M	체격이 보통인 medium을 나타내는 약자
	L	체격이 큰 large를 나타내는 약자
	XL	체격이 가장 큰 extra large를 나타내는 약자

Ⅲ.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

1. 상반신 치수 분석 및 사이즈 분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대여 웨딩

드레스의 상반신 치수 중 가장 중요한 기본 치수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로 성인 여성복에서의 상의류와 하의류의 의류아이템별 기본신체치수가 일부 혼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 성인 여성복의 상의류가 키를 제외하고는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를 기본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인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를 위해 '가슴둘레-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사이즈 체계를 세워보았다.

<표 2>에서와 같이 대여 웨딩드레스로 사용되는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드레스들의 사이즈들은 대부분 가슴둘레 84cm(33inch), 86cm(34inch)와 허리 사이즈 66cm(26inch), 69cm(27inch) 정도를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다. 하지만 대여 웨딩드레스로 제작된 기본 사이즈의 웨딩드레스가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내기란 어렵다. 웨딩드레스의 피트되는 특성상 상완근이나 어깨가 발달한 경우나 복근육이 발달한 경우와 같은 개인의 체형부위별 발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사이즈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여 웨딩드레스는 일부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바디스만의 일정한 사이즈 수용 범위를 가지

며 이는 넥라인과 소매까지도 적용되므로 상반신 디자인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를 분류하는데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바디스로, 바디스의 사이즈 수용 범위는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뒷중심 시접의 여유분에서 가감을 통해 정해진다. 하지만 뒷중심 시접 여유분이 좌, 우 각 3inch라고 해서 기본 26inch의 허리를 기준으로 한 상반신이 32inch를 수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뒷중심 시접분은 어디까지나 여유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여유분으로 무리없이 모든 사이즈와 디자인을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수용 범위를 기본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사이즈별 착용 가능한 일정한 치수의 범위를 가지면서 웨딩드레스 샵에서의 경제적 지출을 막고 제작업체에서의 재고 부담과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의 치수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3가지 분류에 따라 대여 웨딩드레스 각각의 사이즈 호칭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체격이 작은 'small'의 의미를 나타내는 약자인 'S',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인 보통 사이즈를 체격이 보통인 "medium"의 의미를 나타내는 약자인 'M'으로, 보통 이상의 큰 사이즈를 체격이 큰 "large"의 의미를 나타내는 'L'로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3가지 알파벳형 사이즈 분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숫자형 사이즈 체계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KS K 0051에 의하면 현재 성인 여성복의 경우 상의, 하의 및 전신용 의류 중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아 범위로 치수를 표시할 경우에 <표 8>와 같이 'S', 'M', 'L'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혼동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Wedding dress'의 약자로 'W'를 각각의 호칭 앞에 삽입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본 연구자의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 호칭을 'WS', 'WM', 'WL'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가장 적은 사이즈 분류로 가장 넓은 사이즈 수용폭을 갖게 하기 위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의 가장 일반적인 보통 사이즈인 'WM'은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별 상반신 기본 치수인 가슴둘레의 평균치인 34inch보다 약간 큰 88cm로 설정했다. 또한 허리둘레도 평균치인 26inch보다 약간 큰 69cm로 설정했다. 이는 일반 성인 여성복의 '55'사이즈의 평균 신체 치수보다 약간 큰 치수이다. 사이즈 'WM'을 기준으로 가슴둘레는 6cm의 등간을, 허리둘레는 5cm의 등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기준보다 작은 사이즈인 'S'는 가슴둘레 82cm와 허리둘레 64cm로 설정되었으며 가장 큰 사이즈인 'WL'은 가슴둘레 94cm와 허리둘레 74cm로 설정되었다.

뒷중심 시접의 여유량은 대여 웨딩드레스라는 특성상 좀 더 넓은 사이즈의 수용폭과 완전한 지퍼가 봉을 위해 일정량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시접 분량은 외관상의 둔탁함과 소비자의 불편함을 주고 등 부위의 디자인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뒷중심 시접여유량은 각각의 사이즈별 안락한 피트성과 각 사이즈 사이의 소비자들의 착용 가능 사이즈 수용폭을 주기 위해 좌, 우 각 5cm로 설정하였다.

모든 단위는 일반적인 통용 단위인 cm로 통일하였으며 웨딩드레스의 기본신체부위는 상반신을 위주로 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가슴둘레-허리둘레'로 하였다.

<표 9>은 연구자의 대여 웨딩드레스 상반신 치수 분류이다.

<표 9> 대여 웨딩드레스 상반신 치수 분류 (2005)

단위: cm(inch)

호칭	가슴둘레	허리둘레	뒷중심 시접여유량	기본 신체 부위의 표기 순서 (가슴둘레-허리둘레)
WS	82cm (32)	64cm (25)	좌, 우 각 5cm	82-64
WM	88cm (34.5)	69cm (27)	좌, 우 각 5cm	88-69
WL	94cm (37)	74cm (29)	좌, 우 각 5cm	94-74

2.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디자인 유형 범위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디자인은 크게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바디스의 절개선이나 디자인은 패턴원형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의 절개선이나 다아트 머니퐁레이션(Dart Manipulation)를 응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 자체가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디자인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심미성만을 위주로 한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은 웨딩드레스 상반신의 사이즈 착용 가능 범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이즈의 소비자가 탱크 탑(tank top)²⁰⁾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경우와 래글런 소매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경우는 소비자가 착용시에 느끼는 착용감에서도 다르고 실제적으로 바디스에 피트감에 따른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 착용이 가능한 사이즈의 폭이 넓다는 것은 일정 사이즈의 웨딩드레스가 좀 더 다양한 신체치수의 착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한편 웨딩 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대체로 소재의 재질감과 색깔, 레이스의 종류, 자수와 비즈 등의 장식 기법, 스커트의 라인, 전체적인 실루엣 등으로 규정되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웨딩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고급스러움과 심플함이 50~60년대 유행했던 슬립한 실루엣의 작품들과 비슷함 점이 많으며, 2004년의 웨딩드레스 유행 경향은 슬림 앤드 롱 스타일(Slim and Long style)의 심플 라인(simple line)이 기초를 이루는 가운데 자수와 비즈(bead) 등의 장식들이 더욱 절제되면서 소재 자체를 강조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2005년 웨딩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2004년도까지 유행하던 미카도 실크나 새틴에서 벗어나 타프타(taffeta), 메탈 코팅 처리된 소재, 금사, 은사가 가미된 고급 레이스, 비즈 처리된 레이스 등 다소 화려한 소재, 쉬폰, 오간자 등도 유행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A-line이 유행이나 전년도보다는 더욱 슬립 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이로 인해 페티코트(petticoat)를 입지 않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와 같이 웨딩드레스의 유행 경향은 네크라인과 소매 자체의 디자인에 의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은 그 자체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이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인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몇 가지의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제시하여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밝혀내어 사이즈 체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은 길이나 넓이 등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착용되는 디자인을 알아보기 위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국내 웨딩 정기 간행물의 자료를 중심으로 패턴의 기본이 되는 형태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0〉는 제작업체에게 비교를 의뢰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네크라인디자인이며 〈표 17〉은 소매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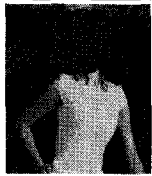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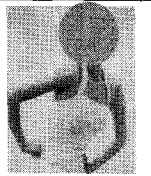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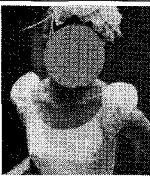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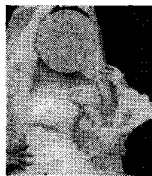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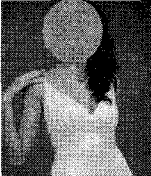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네크라인 디자인에 따른 상반신 기본치수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3업체가 '변화가 있다', 2업체가 '변화가 없다', 3업체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기본치수에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네크라인의 디자인으로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이 네크라인과 바토 네크라인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고 기본치수에 변화를 가장 적게 주는 네크라인으로 공통적으로 탱크 탑(tank top)을 꼽았다.

그리고 소매 디자인에 따른 상반신 기본치수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5업체가 '변화가 있다', 3업체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 했다. 이에 따라 소매 디자인은 네크라인에 비해 더욱 상반신 기본치수의 변화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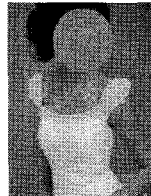



기본치수에 변화를 가장 많이 주는 소매의 디자인으로는 순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케이프 소매와 함께 래글런 소매를 꼽았고 기본치수에 변화를 가장 적게 주는 소매 디자인으로는 모두 민소매(sleeveless)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 치수에 변화를 가장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표 10> 웨딩드레스 상반신 네크라인 디자인의 종류

	하이 네크라인 (차이나포럼)	홀터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바토 네크라인	하트 네크라인
실례						
그림번호	그림 521)	그림 622)	그림 723)	그림 824)	그림 925)	그림 1026)
	오픈 숄더 네크라인	퀸 네크라인	탱크 탑	V 네크라인	카울 네크라인	
실례						
그림번호	그림 1127)	그림 1228)	그림 1329)	그림 1430)	그림 1531)	

<표 11> 웨딩드레스 상반신 소매 디자인의 종류

	셀인 소매	퍼프 소매	래글런 소매	민소매	케이프 소매
실례					
그림 번호	그림 1632)	그림 1733)	그림 1834)	그림 1935)	그림 2036)

자인에 대한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가 좁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본 치수에 변화가 가장 적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가 넓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탱크 탑 스타일의 웨딩드레스는 소매가 생략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치수에 변화를 가장 적게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바디스의 가슴라인 위쪽이 완전히 오픈되어 진동돌레나 어깨넓이에 상관없는 개방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하이 네크라인은 어깨와 목선이 완전히 덮혀 있어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바토 네크라인 역시 어깨의 피트성이 강하

기 때문에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가 좁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매의 형태에서는 케이프와 래글런 소매가 가장 사이즈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소매의 위치가 어깨를 걸쳐 있기 때문에 강한 피트성이 그만큼 어깨 폭과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웨딩드레스 제작업체 패턴 담당자들은 네크라인과 소매의 디자인 중 상반신 기본 치수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을 묻는 질문에 5업체에서 소매 디자인이라고 응답했고 3업체에서는 네크라인과 소매의 조합된 형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 중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것은 소매 디자인이며 네크라인은 소매의 조합된 형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네크라인 디자인 자체만으로는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적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S'에 해당하는 상반신 체형의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네크라인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는 탱크 탑, 하트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V 네크라인, 홀터 네크라인을 꼽았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S'에 해당하는 상반신 체형의 소비자의 경우 어깨나 가슴선 위쪽의 노출이 피트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S'에 해당하는 상반신 체형의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소매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는 래글런 소매와 케이프 소매를 꼽았는데 이는 체형이 더욱 작아 보일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L'에 해당하는 상반신 체형의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네크라인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는 탱크 탑, 하이 네크라인, 바토 네크라인, 홀터 네크라인을 꼽았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여성복의 사이즈 'L'에 해당하는 상반신 체형의 소비자의 경우 과도한 노출과 목선과 어깨를 너무 덮는 모두가 피트성과 심미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소매 디자인을 묻는 질문에는 래글런 소매, 세트 인 소매를 꼽았는데 이는 비교적 큰 체형의 소비자의 경우 어깨부분의 여유분이 없는 소매 디자인이 피트성과 활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웨딩드레스 제작업체 패턴 담당자들의 설문을 통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분류된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에 따라 어울리는 디자인의 유형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추측되는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 유형 범위를 참고 자료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12〉는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디자인 유형의 범위를 제안한 것이다.

〈표 12〉의 상반신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의 유형 범위는 〈표 10〉, 〈표 11〉의 실례들을 참고로 하여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 유형의 범위는 제작업체의 설문 결과와 현재 연구자의 실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들은 각각의 사이즈별로 착용측면에서 보다 나은 피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들은 제시한 객관적인 참고 자료와는 거리가 먼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을 요구할 수 있고 제작업체

〈표 12〉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네크라인 및 소매 디자인 유형 범위

	네크라인 디자인 유형	소매 디자인 유형
사이즈 WS	하이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 바토 네크라인, 오프 숄더 네크라인, 쿤 네크라인, 카울 네크라인	셀 인 소매, 퍼프 소매, 민소매
사이즈 WM	하이 네크라인, 홀터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바토 네크라인, 하트 네크라인, 오프 숄더 네크라인, 쿤 네크라인, 탱크 탑, V 네크라인, 카울 네크라인	셀 인 소매, 퍼프 소매, 래글런 소매, 민소매, 케이프
사이즈 WL	라운드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하트 네크라인, 오프 숄더 네크라인, 쿤 네크라인, V 네크라인, 카울 네크라인	퍼프 소매, 민소매, 케이프

나 웨딩드레스 샵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맞는 디자인의 웨딩드레스를 제작하고 구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표 12〉에 따르면 소매 디자인 중 가장 사이즈의 제약을 많이 받는 래글런 소매의 경우 사이즈 'WL'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해당 사이즈의 소비자가 이러한 소매 디자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네크라인 디자인이나 기타의 디자인 요소로 최대한 보완하는 범위에서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의 유형 범위는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여성복과는 다른 대여상품 개념의 우리나라 웨딩드레스가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사이즈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그에 따라 한계가 지어지는 상반신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 유형의 범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웨딩드레스 제작업체별 상반신 기본치수를 조사, 분석하여 평균치수를 추출하였다.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제작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넓이로 조사되었고, 각각의 치수의 평균은 가슴둘레 86cm(34inch), 허리둘레 66cm(26inch), 등길이 39cm(15¹/₂inch), 어깨넓이 38cm(15inch), 뒷중심의 시접 여유량은 좌, 우 각 8cm(3inch)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웨딩드레스는 대부분이 상반신이 피트되고 스커트부분이 넓게 퍼지는 특징 때문에 엉덩이 둘레와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없는 아이템이므로 필요 기본 신체부위는 '가슴둘레-허리둘레'로 추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작업체의 웨딩드레스 패턴 제작시 사용하는 평균 가슴둘레 86cm(34inch)와 허리둘레 66cm(26inch)에 근접한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 설정을 위해 성인 여성복 일반 사이즈와 상의류 중 가장 입체적인 형태를 지닌 재킷의 기본 신체치수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별 패턴 설계용 신체치수의 기본 치수, 인터넷 쇼핑 물

의 성인 여성복 기본 신체치수, KS K 0051의 성인 여성복의 치수를 참고로 'WS', 'WM', 'WL'로 구분되는 3단계의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를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는 기준이 되는 보통 사이즈로 가슴둘레 88cm, 허리둘레 69cm를 사이즈 'WM'으로 명명하였다. 사이즈 'WM'을 바탕으로 가슴둘레는 위, 아래로 6cm 등간을 두고 허리둘레는 5cm 등간을 둔 가슴둘레 82cm, 허리둘레 64cm를 사이즈 'WS'로, 가슴둘레 94cm, 허리둘레 74cm를 사이즈 'WL'로 명명하였다. 모든 사이즈의 뒷중심 시접 여유량은 좌, 우 각 5cm로 하였고, 신체치수 표기는 '가슴둘레-허리둘레'로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여 웨딩드레스의 상반신 사이즈 분류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한계가 지어지는 네크라인과 소매의 상반신 디자인 유형 범위를 참고 자료로 제안하였다. 상반신이 피트되어 활동성보다는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대여 웨딩드레스의 특성상 일부 상반신 디자인에 따라 각 사이즈별 착용 가능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반신 디자인의 주가 되는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은 각각의 디자인 자체보다는 서로 접목되어 어떠한 디자인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착용 가능한 사이즈의 범위에 있어서 소매 디자인이 네크라인 디자인보다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을 제작업체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반신 사이즈 분류에 따른 네크라인과 소매 디자인의 유형 범위는 소비자의 실제 취향과 욕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트성 등의 착용측면에서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웨딩드레스라는 아이템이 특별한 상황을 위한 예복으로써 인식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복식사적, 디자인적 분야로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론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웨딩업에 수년간 종사해온 개인적인 경험과 견해, 실제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또한 체계적인 치수구분으로부터 소비

자의 안락감과 웨딩드레스 샵의 편리함, 그리고 제작업체의 판매율 증가와 작업 효율성 증대에 그의 의를 두었다.

즉 웨딩드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디자인 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좀 더 실질적인 대여성품으로써 웨딩드레스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 더 나아가 성인 여성복의 치수체계를 바탕으로 웨딩드레스를 대여성품에 맞게 적절한 사이즈를 설정하고 분류했다는 가치를 두었고, 이후에 웨딩드레스에 대한 구성 쪽으로의 접근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 소재나 스커트 길이, 디자인 등을 포함한 좀 더 폭넓은 부분의 사이즈 체계가 연구되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1) 우리나라의 경우 웨딩드레스를 일반적인 샘플 대여 혹은 맞춤 대여를 주로 하는 웨딩드레스 대여점을 통상적으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칭한다. 이후 웨딩드레스 대여나 맞춤 전문점, 웨딩 샵 등의 명칭을 웨딩드레스 샵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 2) 패션큰사전위원회(1999).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p. 465.
- 3) Elizabeth B. Hurlock(1976). *The psychology of dress*. New York, arno press, p. 76.
- 4) 김계형(2002). 우리 나라 여성의 웨딩드레스 선호도 비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3.
- 5) 문윤경(1995).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0.
- 6) 통상적으로 웨딩드레스 샵 등의 업계에서 소비자가 착용한 상태에서의 입체적인 바디스의 사이즈를 핀으로 표시하여 좌, 우 편선으로 지퍼를 달아서 착용하게 되는 가봉형태를 지칭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여성품 웨딩드레스의 기본 사이즈 가봉을 이후부터 지퍼가봉이라 칭한다.
- 7) 본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웨딩드레스 제작업체의 관례에 따라 자체적인 샘플작업 후 다양한 영업활동을 통한 주문에 대한 샘플의 동일 생산을 가르켜 샘플 제작이라 하고, 자체의 샘플 이외 별도의 주문 디자인에 대한 개별 생산을 맞춤 제작이라 명명하였다.
- 8)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웨딩드레스 전용 브래지어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사전적 개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웨딩드레스의 고유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상반신의 인체 실루엣을 극도로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일정한 곡선을 가진 전용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대여성품 웨딩드레스가 대부분이 일반 브래지어로는 커버할 수 없는 다른 일정한 가슴의 돌출 커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기 전에 그에 알맞은 웨딩 브래지어로 가슴돌출을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9) 문윤경. 앞의 책, p.348.
- 10) 한국 산업 규격(2004). 신체 치수에 대한 의류 치수의 맞는 정도, 맞춤새. KS K0051:2004, p. 1.
- 11) 이형숙(2000).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성인 여성복 치수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 12) 손희순(1989).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 규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
- 13) 천중숙(1996). 여성성인 여성복의 치수표기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15(1), pp.105-117.
- 14) 오설영(2000). 성인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설정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 15) 조윤주, 백경자, 이정란(2004). 성인 여성복 재킷의 치수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p.348.
- 16) 위의 책, p.351.
- 17) 오설영, 천중숙(2002). 한국 성인 여성복 브랜드의 치수 체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pp.50-61.
- 18) 한국 표준협회(2004). 성인 여성복 의류 종류별 기본 신체 부위. KS K 0051:2004, p.2.
- 19) 위의 책, p.12.
- 20) 패션큰사전위원회. 앞의 책, p.614. 웨딩드레스의 경우 탱크 탑은 탱크 스타일이라고 주로 불리우며, 전통적인 탱크 탑을 포함하여 어깨에 걸쳐지는 부분이 없는 몸통부분만 감싸거나 끈으로 지탱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후로는 탱크 스타일로 명명하였다.
- 21)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12월호.
- 22)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6월호.
- 23) 삶과 문화(2003).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5월호.
- 24) 웅진닷컴(2005).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3월호.
- 25) 삶과 문화(2003).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3월호.
- 26) 삶과 문화(2003).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8월호.
- 27) 삶과 문화(2004).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10월호.
- 28) 삶과 문화(2004).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2월호.
- 29)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4월호.
- 30)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1월호.
- 31) 삶과 문화(2004).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8월호.
- 32) 삶과 문화(2005).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4월호.
- 33)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9월호.
- 34) 웅진닷컴(2004).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4월호.
- 35) 웅진닷컴(2005). 마이웨딩. 서울:(주)웅진닷컴, 3월호.
- 36) 삶과 문화(2004). Wedding 21. 서울:(주)삶과 문화, 11월호.